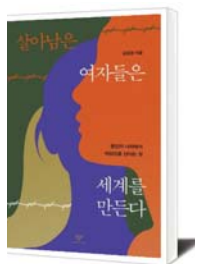


새 책

▶살아남은 여자들은(김성경 지음)=전통적인 학술적 글쓰기에 갇히지 않고 산문, 소설, 편지 등의 형식을 적극적으로 차용해 북조선 여성들의 역동적인 삶을 복원해냈다. 사회과학적 연구와 통찰에 기반한 상상력을 덧입혀 소개하는 다양한 여성들의 서사는 전쟁, 분단 등의 역사적 파고 속에서 한 여성의 삶이 어떠한 궤적을 그렸는지 추적하는 곡진한 기록이다. 창비. 1만8000원.



▶수학을 포기하려는 나에게(장우석 지음)=수학이 절대 선택 과목이 될 수 없는 이유부터 시작해, 수학의 본질적인 특성과 수학만의 고유한 사고법 및 문제 해결법을 이야기한다. 당장의 수학 점수보다 중요한 인생의 '문제 해결'로서의 진정한 수학 세계를 열어 준다. 북트리거. 1만5500원.



▶트렌드 포에트리, 틈의 계보학(백애송 지음)=평론가와 시인으로 활발하게 활동하면서 자신의 문학세계를 꾸준히 넓혀 온 백애송의 첫 비평집. 백애송이 말하는 틈이란 세계와 세계 사이, 관계와 관계 사이, 사물과 사물 사이 등 삶 속에 놓인 다양한 존재의 틈을 말한다. 걷는사람. 1만7000원.



▶신을 지키는 아이(히로시마 레이코 지음, 김정화 옮김)=청소년 독자에서 성인 독자에게 아우를 수 있는 인간의 욕망에 관한 아름답고도 애처로운 판타지를 선보인다. 인간의 탐욕에 대한 복수와 자유를 찾는 이야기로, 마지막 페이지까지 절망을 집약할 수 없을 긴장감과 흥미진진함을 보여준다. 꿈터. 1만5000원.



▶사랑에 빠진 물고기(이란 글, 홍순미 그림, 정세경 옮김)=사랑과 파스함이 담긴 이야기로 아이들을 감싸 주는 잠자리 그림책. 작품 속 작은 물고기는 어린이와 같다. 세상의 모든 것이 신기하다. 파스한 해와 시원한 바람과 철썩이는 파도 등 다양한 것을 사랑하게 된다. 봄봄. 1만4000원.



▶호랑떡집(서현 지음)=떡집 사장 호랑이와 시골벽적 요괴들이 뭉쳤다! 떡집 사장 호랑이의 이야기는 쫄깃쫄깃, 활개 치는 요괴들의 난장은 쿵떡쿵떡, 서현 작가의 개성 만점 캐릭터들이 찰떡찰떡 뭉쳐 맛난 그림책이 나왔다. 사계절. 1만6500원.



조상윤기자

거절을 발판 삼아 변화·성공에 이른다

제시카 베컬의 '내 인생을 바꾼 거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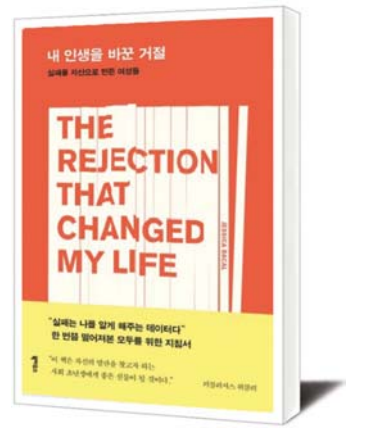
일·삶 변화시킨 거절 경험
새로운 길 만들어낸 이야기

인생, 학업, 커리어에서 결코 피할 수 없는 거절. 물론 한 번 거절당했다고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알지만 일단 마음이 상하고 다음을 시작할 용기가 작아지는 경험을 해본 적이 있을 것이다. 책 '내 인생을 바꾼 거절'(북하우스 펴냄)은 실패를 자산으로 만든 29명의 여성들의 이야기를 통해 거절의 벽에 부딪혔을 때 어떻게 극복하고 나아갔는지, "거절을 발판삼아 변화하고 발전한 경험"을 들려준다.

경력 개발 전문가인 저자 제시카 베컬 박사는 오랜 현장 연구를 통해 우리가 찾아나서야 하는 것은 성공담이 아니라 실패담이라는 결론을 도출했다. 하지만 실패 이야기는 대개 감춰

져 있다. 저자도 들어가며에서 "거절"은 너무도 거절당하기 쉬운 주제였다"며 인터뷰를 요청했다가 거절당한 이야기를 전했다. 그러나 저자는 "이 책은 필요하다. 왜냐하면 독자들이 다른 사람의 거절 경험담을 읽으며 자기만 그런 일을 겪는 게 아님을 알 수 있기 때문이고 또 알아야만 하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거절 경험을 통해 더 강해질 수 있음을 증명하고 싶었다"고 했다.

책은 크게 5부로 구성됐다. 저자는 거절 경험의 의의를 데이터, 창의성, 마음 근육, 진로 창조 등의 차원에서 분석한다. 1부엔 심리학자, 변호사, 베스트셀러 작가, 텔레비전 프로듀서, CEO 등 화려한 직함을 가진 여성들의 거절 경험담과 거절을 하나의 데이터로 삼아 새로운 발판을 만든 이야기가 담겼다. 2



부에선 다양한 예술 분야에서 커리어를 이어온 여성들이 거절과 창의력의 관계를 들려주고, 3부에선 대중을 상대하는 활동가 중심의 여성들이 거절의 경험을 '맷집'으로 전환한 방법을 소개한다. 4부는 큰 굴곡을 경험한 시니어 여성들이 거절 경험 후 아예 새로운 길을 만들어낸 이야기가 엮였다.

그리고 저자는 마지막 5부에서 거절과 관련한 사회과학적 연구를 토대로 구성한 대처법 훈련 7가지를 소개한다. 오윤성 옮김. 1만6500원. 오은지기자

앞으로 나아갈 힘을 주는 따뜻한 응원

올망의 '어쩌쵸, 키위씨?'

트위터에서 인기리에 연재 중인 '어쩌쵸, 키위씨?'(세미폴론 펴냄)가 책으로 나왔다. '걱정 많은 친구들과 '키위씨'가 나누는 든직한 응원과 공감'이란 부제가 달린 책에는 정력이 발달해 듣는 것을 잘하는 키위씨 '키위씨'와 꿀벌, 뱀, 다람쥐, 코끼리, 두더지, 카피바라 등 작고 까만 눈을 가진 다양한 성격의 친구들이 각자 처한 상황에서 맞닥뜨린 고민을 주고받으며 좀 더 나은 방향을 찾기 위해 머리를 맞댄다.

책은 주인공 키위씨가 만난 친구들을 세 유형으로 나눠 크게 3장으로 구성됐다. 1장엔 키위씨보다 세상 경험이 적은 친구들이

등장한다. 어린 친구들을 대하는 키위씨의 사려 깊은 행동과 말을 통해 우리가 되어야 할 바람직한 어른의 모습이 무엇인지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된다.

2장은 키위씨와 경험이 비슷한 친구들이 나온다. 꿈과 열, 앞으로의 목표에 대해 고민이 많은 사람, 주변과 비교하며 나를 깎아내리는 이들에게 추천하는 장이다.

듣직한 키위씨도 가끔은 고민이 생기기 마련. 3장은 키위씨보다 경험 많은 친구들이 등장해 쉽게 말하지 못했던 키위씨의 마음속 고민들을 다룬다.

이렇게 책에 담긴 55가지의 사연은 특별한 사건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누구나 살면서 한 번쯤은 경험하는 일들이다.



출판사는 "저마다 다른 상황인데도 위로 받을 수 있는 건 애써 외면하려 했던 고민들을 키위씨와 친구들이 다정하게 들어주기 때문일 것"이라고 했다.

위로가 되는 따뜻한 대화뿐만 아니라 단순하면서도 각 동물의 특징을 잘 포착해낸 그림체도 이 책의 매력 포인트다. 올망 글·그림. 1만6800원. 오은지기자

이 책 '인간적인 죽음을 위하여'

"하루의 소중함 일깨우는 올림"

"누구나 한 번은 맞이할 죽음. 인간적인 죽음은 무엇일까?"

책 '인간적인 죽음을 위하여'(펜토프레스 펴냄)에서 저자 유성이 작가는 한 개인의 죽음에 초점을 맞추고 인간적인 죽음을 맞이 위해 개인 스스로가 자기 돌봄을 하며 현실적 준비도 해야겠지만, 타인의 도움이 절대 필요함을 강조한다.

책은 저자가 2021년 호스피스병원에서 만난 "88세인 어르신이 죽어가는 시간 속에서 생명을 지닌 한 인간으로 존재했던 22일간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또 간병을 하면서 어르신의 행동, 생각, 감정 등 일거수일투족을 세세하게 보고 느낀 기록이기도 하다.

책은 크게 3부로 구성됐다. 1부에서 저자는 2007년 암마의 죽음 이후 '죽음'에 대한 모든 것을 알기 위한 여정이 시작됐다고 술회한다. 그리고 12년 지나 요양병원에서 임종을 맞은 아버지, 저자는 더욱 '생애 말 돌

죽음을 지켜보며 시작된 '죽음' 연구
돌봄의 의미·가치에 대한 성찰 기록



봄과 임종(생명윤리학)' 연구에 박차를 가하며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호스피스병원에서 직접 체험한 것을 기록으로 남기기 시작했다.

2부는 저자가 간병사로서 세 번째 돌봄을 했던 '88세 노인의 마지막 인생, 22일 동안의 호스피스 이야기'다. "마치, 병실에서 환자와 같이 보내고 있는 느낌을 받을" 만큼 저자는 날짜별로 그 날의 이야기를 생생하게 기록하고 있다.

3부는 마지막 '편안한 죽음'을 맞이하기 위한 기록이다. 저자는 간병사 일을 그만두고 생애 말년을 보내는 어르신들의 삶을 조금 더 경험하고 싶어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 집으로 찾아가 돌봄 하는 일을 3개월, 치매나 신체가 불편한 어르신을 온종일 돌봄 하는 주간보호센터에서 7개월을 더 경험한다. 그리고 저자가 살고 있는 임대 아파트에서 있었던 일을 소개하며 '내어쭈'이 무엇이고 '영적 돌봄'이 무엇인지 되새긴다.

서문에서 이 책이 독자들에게 "인간적인 죽음을 위하여" 오늘 하루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낮은 올림이 되길 바란다"고 밝힌 저자는 "늘 죽음을 기억하며 삶에서 활짝 핀 꽃처럼 하루를 차곡차 살아야겠다. 인간적인 죽음으로 삶을 완성하기 위해."라는 다짐으로 책을 끝맺는다. 1만3800원. 오은지기자 ejoh@ihalla.com

제주도에서 직접 생산하는 팬 전문 제조업체 보조사업 전문 시공업체

※ 농협중앙회 자체계약업체
※ 조달청 상품 등록업체

전 품목 전기안전인증
전 품목 IP54, IP55 방진방수인증

향토기업

(주)팜그린텍

특허 제 10-2078975호
특허 제 10-2182942호
특허 제 10-2451228호

시설하우스 태풍피해 대비 제품 환풍기(800W) 환풍기 가동률 통해 비닐하우스내 내압을 높여 태풍으로 부터 하우스 지지 및 보호 • 프레임 보강 처단 사용 내구성 강화 • 모터내 TFP(모터보호) 기능 탑재 2023년 FTA 보조사업 품목	결상에 대비한 자동개폐기 전원자동변환 장치 태풍 또는 기타 사유로 전원 정전(결상)시 자동개폐기 전원을 안정되게 공급하여 고온피해 예방 • 특허 제10-2196685호 • 정전(결상)시 하우스개폐기 전원 자동변환 고온피해 예방 2023년 농업기술센터 시범사업 품목	하우스지킴이 고온,저온 설정 범위 초과시 휴대폰 알람기능 자동개폐기 전원자동변환 장치와 연동시 상변환 알람기능 • 최대 5인까지 휴대폰 알람등록 가능	2023년 FTA 보조사업 품목 공기교반기(60W, 130W) 교반기(60W) 교반기(130W) • 특허 제 10-2078975호 • 바람편 도출구로 인해 공기순환을 사각지대 최소화(특허) 상분리 제어기 • 32인 상분리 팬 제어 기능 • 자동 수동 모드 • 온도,시간 설정에 따른 제어 기능
		송풍팬(60W, 130W) 송풍팬(60W) 송풍팬(130W) • 파이프 재질로 고경구가 있어 안정적이고 깔끔한 송풍팬 사용 • 모터내 TFP(모터보호) 기능 탑재 모터(60W, 130W) • 특허 제10-2078975호 • 모터캡 사용으로 방습,방진으로 부터 모터 2중 보호(특허) • 모터내 TFP(모터보호) 기능 탑재	

(주)팜그린텍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하신상로 226 T. 064)732.0440~1, F. 064)763.0440

www.팜그린텍.kr / www.fgtech.kr